
2021년 제41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10. 8. ~ 10. 1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10. 8.	시청률	0.000

【총 평】

지역특성을 살린 청년창업으로 지역정착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상주의 청년공동체 '이인삼각'과 공주시의 청년마을 '자유도' 5주간 창업 체험을 소개해 자연스럽게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시행 반년 리포트는 정책시행 6개월 시점에서 정책을 평가해 보는 기획이 탁월했다. 또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문제점을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한 점이 돋보였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직접 속도측정기로 과속행위를 점검해보는 장면이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이 밖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아이템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고, 동네 배움터, 한양도성 완주 인증, 올바른 걷기운동, 한국 민속촌 가을축제 등 다양한 소재와 생활 정보를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구성 및 내용】

- 상주시 정착 함께해요, 청년공동체 '이인삼각'
경북 상주시의 '이인삼각'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의 길을 선택한 청년들의 생각과 꿈을 담아냈다. 다양한 경험을 살린 창업에 도전하며 상주 정착을 시도하는 젊은이들을 조명했다. 심리상담소, 상주 농산물로 만든 디저트, 이외에도 막걸리나 굿즈 등 창업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과 아이디어가 한곳에 모여 있다.
- 공주 청년마을 '자유도' 5주간 창업 체험 인기
충남 공주시의 청년마을 '자유도'의 공유 사무실에서 5주 동안 공주에 살면서 창업을 체험해 보기 위해 모인 13팀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3년 전에 공주에 정착한 '퍼즐랩'이 행안부가 예산을 지원받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더 의미가 컸다.
- '안전속도 5030' 시행 반년, 교통사고 줄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으로 도심에서 교통사고가 전체 사망자가 12.6%, 보행 사망자가 16.7% 감소해 교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운전자들의 어려움도 같이 소개해 국민들의 생각을 잘 담아냈다.
- 생활밀착형 시민 강좌, '동네배움터'에서 배워요
경기도 용인시는 2016년부터 동네 배움터 1시민 1강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민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와 장소를 정하면 강사가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강좌로 효율성과 효과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
- 서울 '한양도성 완주 인증' 시민 참여 잇따라
서울시가 한양 도성 4개 구간을 완주한 시민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양 도성은 백악구간 남산구간 낙산구간 인왕산 구간 4개의 구간으로 나뉜다. 휴대폰에서 한양 도성앱을 다운 받아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10. 8.	시청률	0.000

【총 평】

경제&이슈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특히 코로나19 현황과 이로 인해 손실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희망복지금 대책을 살펴보고, 손실 보장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 들었다. 최근 행태를 달리하는 금융서비스도 살펴보면서 그 변화의 양상도 알아보았다. 또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을 알려주었다. 이 밖의 경제이슈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올 상반기 금융소비자들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용이 급증했으며 최근 3년간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수치를 그래픽 화면으로 분석해 보고 금융의 혁명적 변화라는 원론적 결론을 내렸다.

‘알뜰신잡’에서는 분리배출 제대로 실천법을 소개했다. 분리배출의 기본 원칙과 배달음식 용기 올바른 배출 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며,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므로 통계를 정확하게 내기 어렵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57.3%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33.3%는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24%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휴폐업을 고민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없을 것이며,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10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는 이때까지의 재난지원금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손실보장제도는 법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둔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조치 규제에 의한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상한다는, 건국 이래 처음이며, 전부의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손실보장 대상 조치를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한다는 관계 법령을 설명했다. 또 보상금 신속 지급을 위한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해 빠른 보상금 지급으로 소요 시간을 단축해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의 금융소비자의 행태와 금융서비스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으로 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은행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인터넷 뱅킹이 출현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로 이들은 100% 비대면 인터넷 뱅킹이어서 은행 건물이 없다. 금융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화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액 역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실적이 높다. 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10. 8.	시청률	0.073

【총 평】

‘굴림추색, 제주 유기농 굴농장 혼자옴서예’에서는 제주 특산물인 감굴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50대 부부의 꾸밈없는 전원생활을 통해 삶의 여유로움을 선사한 기획이 호감을 주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특유의 유기농으로 감굴을 생산해내고 이를 건조시켜 천연화장품 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부부의 생활을 통해 섬세하게 드러났다.

특히, 화학 비료 대신 유기농으로 굴을 재배하는 소신과 의지를 가볍게 접근하면서도 큰 울림을 준 기획력이 돋보이는 구성이었다. 지속적인 친환경 농사를 위해서는 판매유통 문제가 관건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점도 유의미했다. 특히 서귀포 바다 전경과 파도, 폭포 등 제주도의 가을을 물씬 풍기는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코로나19 블루에 시달리는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물했다.

【구성 및 내용】

‘굴림추색, 제주 유기농 굴농장! 혼자옴서예’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유기농 감굴농장을 방문하여 유기농법을 실행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유기농 굴농장 운영, 친환경 농사의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며 제주도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굴농장 부부의 소신과 유기농 농법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구성한 점이 돋보였다. 제주도의 조생굴은 10월이 수확철이다. 대부분의 주민이 굴 농사를 짓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의귀리는 밤이면 별이 쏟아지는 청정 자연을 품고 있어 굴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주인공 부부는 제주 시내에서 학원을 운영하다 지난 2014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감굴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감굴농장에서는 화학 비료 대신 낙과 등을 천연퇴비로 이용하며 유기농 농법을 고수하고 있다. 탕자나무에 접붙이는 거에 따라 품종이 한라봉, 금굴, 하굴로 나뉜다. 다른 감굴원에 비해 수확량은 반 정도다. 그러나 유기농을 고집하는 것은 본인들이 먹지 못하는 굴을 남들에게 팔 수 없어서이다. 감태를 감굴나무 영양제로 활용하고 풋굴을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를 활용한다. 또한 바닷물을 길어 굴나무에 뿌려주는 데 이는 태풍이 올 때 자연스레 바닷물이 감굴에 뿌려졌을 때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농장 한 쪽에는 닭들을 키우고 있는데 계란, 몸보신용 등 다양한 종을 키운다. 먹이를 주고 나면 닭들을 농장에 풀어놓는데 그러면 제초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판로 개척이 어렵다. 농협에서도 일반 농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이 이뤄지지만 친환경 농법의 경우 지원도 많이 없다. 이에 유기농 풋굴을 활용한 가공품을 만들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노력도 함께 한다. 얇게 썰어 건조시킨다거나 화장품원료로 납품하기도 한다. 결국 지속적인 친환경 농사를 위해서는 판매가 중요하다. 그렇기에 단순 감굴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로 확보가 요구된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10. 9.	시청률	0.019

【총 평】

“덜컹 350년 된 문화재를 샀습니다.”편은 야생화의 아름다운 영상과 350년 고택의 정경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귀촌 15년차인 주인공이 350년 전 조선 숙종 때 최응성 고택을 사서 한옥스테이를 하는 모습과 심경이 소박하게 잘 그려졌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고택 곳곳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구성이 인상적이었고, 여러 가족들이 한옥 체험을 하는 다채로운 구성이 돋보였고 프랑스 청년이 행랑채에서 나온 설정이 절묘했다. 사계절 야생화가 피고 지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고택에서 우리의 것을 느끼며 편히 쉬어가는 한옥에 매료된 시간이었다. 또 풍성한 한식 상차림과 친절함도 한옥 체험을 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구성 및 내용】

충북 충주에서 350년된 고택을 리모델링하여 손질하고 꾸미며 살고 있는 주인공의 삶을 소개했다. 특히 정원을 꾸미고, 야생화로 작은 접시 정원도 만들어 판매하며, 문화재인 고택의 전통을 한옥스테이 체험으로 운영하며 알차게 생활하고 있다. 2016년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옥스테이로 지정받아 350년된 고택은 찾아와준 손님 한분 한분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다. 주인공은 시시때때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야생화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료 야생화 교실도 열고, 다양한 한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고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6년 전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한옥 스테이를 시작하게 되었고 풍부한 한옥 지식을 알려주고 있다. 독특한 중부지방 가옥의 매력을 담고 있는 고택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들, 프랑스 청년이 자전거 여행을 하는 중 하룻밤 묵어갈 정도로 고택의 아름다움은 많이 알려져 있다. 자연스럽게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 고택을 돌보는 것에 만족하는 소박한 삶이 전달됐다. 대개 ‘ㄷ’자 또는 ‘ㄱ’자 형태를 이루는 중부지방의 일반적 가옥과 달리 이 집은 ‘ㄱ’자로 되어 있다. 창을 많이 내어서 자연 채광을 활용하고, 이중문도 두었다. 대문을 열면 바깥에서 집안 전체가 보이지 않게 해두어 바람이 바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두었으며 더불어 사생활 보호도 된다. 주인공이 고택 안에 심은 야생화는 200 여종으로 “야생화의 매력은 잘 가꾸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잘 살고 번식도 잘 된다는 점”이라며 ‘생명력이 강하다’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생명력 강한 야생화처럼, 오랜 서울 살이 끝에 고향인 충주로 내려와 한옥을 지키고 야생화를 키우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 15년 전 아름다운 고택의 매력에 빠져 매수한 후 혼자 즐기고 싶었던 한옥의 고즈넉함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루 나눠주고 있는 주인공은 사람의 온기가 없는 집은 금방 상해버리고 마는데 멀리서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의 발걸음 덕분에 오늘도 고택이 젊어지고 있다며 고택을 지키는 삶의 보람을 전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0. 10.	시청률	0.136

【총 평】

‘친북’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 회담의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있어서 스포츠와 문화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출전은 4자 회담, 종전선언 등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 의지와 IOC 입장을 조명하며, 올림픽 참여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 본 기획이 탁월했다. ‘이슈텔링’에서는 금강산의 폭포, 만물상의 절경과 함께 금강산 포장마차 메뉴 등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고 시청자들에게 금강산을 소개함으로써 금강산 관광 재개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였다.

【구성 및 내용】

남북통신연락선 재개와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미중 4자 회담의 가능성까지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의 신문과 방송 보도를 통해 2022년 베이징올림픽 참가 의지를 조명하며 도쿄올림픽에 불참해 IOC로부터 2022년까지 자격정지를 받은 북한의 올림픽 참여 가능성을 짚었다.

10월 2일자 노동신문에서는 금메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 의미 등 메달 욕심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이에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북정상회담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재 도쿄올림픽 불참에 의한 올림픽 헌장 위배 따라 올림픽 출전 금지 상태이나 앞선 러시아의 사례처럼 선수 개인의 참여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선수 개인 자격 출전 시에는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성공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중국과 IOC 위원장의 역할을 조명하며 북한의 올림픽 참여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진단했다. 더불어 전 통일부 장관과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언과 남북통신선 복구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슈텔링’에서는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가을 산의 대명사인 금강산으로의 랜선 여행을 소개하였다. 만물의 모습을 닮은 바위와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만물상과 색색의 단풍들을 보여주었다. 낮에 금강산을 등산한 이후 야간에는 공연을 진행하는데, 온정각 주변에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조성되어 있다. 밤 11시까지 자유롭게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포장마차에는 강원도 대표 음식인 감자전, 담금주, 손두부, 도토리묵 등 남한과 비슷한 메뉴가 준비된다.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고 낙지를 오징어라고 부르는 등 서로 다른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서로 다른 점도 소개하였다. 올림픽 정신과 한반도 평화를 부각한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제고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슈를 통해 종전선언 등 현안 타개를 화두로 제시하여 소구력을 높였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10. 10.	시청률	0.071

【총 평】

‘사이버 세계를 지켜라! K-사이버 방역’ 편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반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보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였다. 사이버 보안이 왜 필요한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문제 제기하고 사이버 보안 의식, 산업기술 유출, 허술한 중소기업 사이버 대응 실태 등 문제점으로 지적해 경각심을 높였다. 또 현장 탐방을 통해 랜섬웨어 해킹을 막기 위해 정부와 민간 공동대응, 보안부문 투자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어 현장감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이버 방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직 사이버 보안은 사이버 세상이 중심이지만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 되면서 가상세계의 보안이 현실세계로 이어진다. 실물 신분증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인식이 되고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방식이 확산되는 것이 스마트시티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안이 뚫린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는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도용, 사진 합성은 물론 디도스 공격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규모 또한 급격히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역시 자율주행을 위한 도시 인프라와 접속되는 등 스마트화가 진행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데이터가 핵심 경쟁력인데도 위기의식은 낮아 만약 스마트홈이 해킹된다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서비스, 제품은 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IT 강국인 한국은 사이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2위이지만 보안 기술 수준은 6위 수준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에 비해 보안 수준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대응책 마련의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IoT 보안 인증 서비스도 현재 초기라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 대응에 취약하며 이는 특히 비용 부담이 많이 작용한다.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의 경우 디지털 뉴딜 예산을 확대편성하고 K-사이버방역 분야도 예산이 증가했다.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을 구축하고 보안 패러다임의 강화하며 정보보호 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기업의 사이버 위협 예방, 진단, 대응의 기반 마련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보 보안 체계는 아직 스마트폰, 컴퓨터 등 사이버 보안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 다중화된 보안체계의 적용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10. 10.	시청률	0.005

【총 평】

‘유엔총회 참석, 글로벌 한국의 역할과 과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종전을 지지하는 국민의 노력과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 등을 여러 각도로 조명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과정을 새롭게 일깨워주었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 당당히 자신들의 발언을 하고 퍼포먼스까지 선보인 방탄소년단의 모습은 시선을 끌기 충분했고, 감동의 순간이었다. 우리나라와 영국, 그리고 베트남 간에 이루어지는 백신 외교의 핵심을 짚어보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한미 백신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백신 외교에 관한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어 수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구성 및 내용】

올해는 남북 공동 유엔 가입 30주년이 되는 해로 제76회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구상을 소개했다. 북한의 긍정적인 대응과 함께 이번 방미 결과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된 큰 성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올해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에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조짐을 포착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했다. 북미관계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부정적 대응만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이 남북미, 남북미중 참여의 회담을 제안한 것은 다자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논의 재가동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전선언이 남북한 대화 재개와 협력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했다.

이번 유엔 총회는 BTS가 개회식 연설을 하고 엄숙한 회의장을 배경으로 Permission to Dance 퍼포먼스를 멋지고 자랑스럽게 했다. 이런 것을 통해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또한 대통령과 함께 BTS는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하여 ‘팝스타와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공동 인터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목적에 백신외교가 있었는데,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과 종전선언 논의라는 굵직한 성과를 냈다. 미국 싸이티바(Cytiva)사(社)의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게 되며, 우리는 세계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를 향한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이후 백신, 반도체 공급망, 신기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우리 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1. 10. 10.	시청률	0.024

【총 평】

‘곡선화 마을 진출입로 안전 위협, 직선 변경’에서는 충남 구례군 마을을 지나는 서부 내륙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기존의 진출입로가 곡선으로 설계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현장의 문제를 소개했다. 수정하기 어려운 고속도로 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제도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사는 진출입로 주변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최대한 직선으로 재설계하여 해결하였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맞춤형 버스’로 해결’에서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 제기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로 노선과 배차 시간 단축으로 해결된 사례를 전했다.

【구성 및 내용】

충남 예산군 구례 마을 앞으로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마을의 진출입로가 곡선으로 설계되었다. 곡선 진출입로의 불편함과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 마을은 약 100여명의 주민들이 주로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민들 대부분이 70대 이상인 마을이다. 마을 앞으로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들어서기로 했고 기존 마을 진출입로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마을 위로 고속도로가 교각으로 지어지면서 원래 있던 마을 진출입로를 교각 아래 사이에 곡선으로 변경하게 된 설계 때문이었다. 도로가 곡선화 되면 시야를 방해하게 되고 안전 문제가 야기된다. 원래 설계대로 곡선 도로를 만들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도로 직선화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곧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관련 사업자, 관련 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진출입로를 직선화하는 협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마을 진출입로를 최대한 직선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와 서하리, 도평리, 용수리 등은 오래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가까운 곳을 갈 때에도 환승을 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거주 주민들이 3만 4천명이나 되는 데도 수익성 문제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맞춤형 버스사업에 공모하여 이에 선정되었다.

경기도 맞춤형 버스사업은 경기도와 광주시가 재정의 50%를 각각 부담하여 교통소외 지역에 노선버스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초월읍에는 25인승 친환경 전기 버스가 신설되어 기본 7차레에 추가로 7편이 신설되어 배차도 두 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학생 등 하교에 맞추어 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정차역과 운행시간도 주민들의 편리에 따라 정하는 등 맞춤형 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결하였다